

남여동락가



[해제]

" <남여동락가>는 두루마리에 필사된 한글 가사로 일반적인 화전가 계통의 가사이며 정확한 작가와 창작연대는 알 수 없다. 작품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해 한스러운 여자의 인생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반부는 중국 고대 문장가들의 놀이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여인네들이 모여 앉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품 말미는 화전놀이를 가자고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

[원문]

남여동락가

우리인생 생길적에 남여구별 없을손가
전도받아 생긴몸이 남자몸이 되어있고
가소롭다 우리인생 여자된일 한이로다
십리출입 오리출입 마음대로 못해보고
뉴대정◆ 좋은으니 노름한번 못해동유
구주심친 우자로다 부러울사 남백은
만고문장 이태하여 관산에서 공ᄇᆞᆫ지난
도제천하 한ᄇᆞᆫ 타신복두 문방으로
행산거사 백낙천은 구로해를 일삼드니
서촉강산 두자미난 낙성이별 하온후에
남자노름 곳곳마다 내이를게 들어바라
채석강에 배를뛰워 강남풍월 회롱하고
장미화를 손에들고 수걸운하 하여있고
청산록수 그가운데 풍월수인 대여있고
청강일 좋은곳서 장화강천 노라있고
부춘산에 음지룡은 칠이동강 찾아가서
석범천의 육방용은 군산추야 글을읽어
오류촌에 도련명은 오두룡을 마다하고
사십문장 매호연은 필영상의 술을실고
풍채좋은 두목지난 사추거의 벗늘대자
일사풍월 좋은경을 불한삼공 이아닌가
피속누에 높이올아 오히가를 지여있고
국화주를 취기먹고 형풍복상 노라불가
오동추야 달밝은데 그날시를 지여있고
최과양주 하올적에 굴만거가 되어있고
육일거사 구양춘은 춘복춘추 같기하야
적벽강에 소동파는 거죽속게 하올적에
동왕각의 높은차지 왕자아니 노라있고
항항류와 봉항대도 만고문장 차지로다
금한낙조 하야시니 그풍처가 오작한가

동산임수 하울적에 경일만가 하여있고
 요소가와 명월시로 범범중유 노라있고
 만호장안 귀공자나 금안준만 되도상에
 자고극금 문장계가 오난것이 많다마는
 력력기록 하자하니 그리하여 할수없네
 여보아라 그말말고 우리노름 찾아보세
 시호시호 부자래라 다시젊지 못하리라
 말만해도 좋다마는 무슨노름 차려볼고
 소자첩의 체격으로 기망노름 하여볼가
 가소롭다 우리여자 노는것이 정처없네
 이팔청춘 허송하며 백발되면 허사로다
 부대부대 허송말고 노름기구 차려보세
 이태백의 뺨을받아 체석강에 노라볼가
 왕우군의 이름으로 수계사를 하여볼가
 육방용의 노름으로 춘복춘추 하여볼가
 여보시요 그말말고 우리여자 유행으로
 귀공자의 뺨을받아 쌍쌍명옥 하여볼가
 청산녹수 들어가서 풍월주인 치여볼가
 여보아라 그말고 여자행신 될수있나
 이십문장 지장같이 남유강호 하여볼가
 강호노름 하여보며 외인점시 될수있나
 오호연경 찾아가서 풍월하고 노라볼가
 국화주와 연합주를 취게먹고 노라볼가
 이말저말 다버리고 일연가절 찾아보세
 정월이라 십오야의 망월노름 좋건마는
 이월이라 한식절의 청맹시절 좋치마는
 사월이라 초파일에 관동절이 좋치마는
 오월이라 단오절에 춘천노름 좋건마는
 유월이라 유두절은 명절뒤틀기 없지마는
 청춘소년 할일일세 우리여자 부당하고
 계자추를 생각하니 참아슬퍼 놀수없고
 산중처사 할일일세 우리소객 할일인가
 당명황의 양귀비가 우리먼저 노라있고
 삼복염적 더울때에 우리어이 노잔말가
 칠월이라 지망양의 정백노름 좋건마는
 중추팔월 기망야가 명절이사 좋치마는
 구월이라 초구일의 용산노름 좋건마는
 시월이라 시사절은 갓기신영 생각하야

십일월에 동지절은 제사하는 그때로다
조맹덕을 생각하니 참아슬퍼 못놀겠다
집집마다 신곡으로 천신하는 날이로다
망향대를 생각하니 슬픈마음 절로난다
향녹기강 하울적에 불성감창 이아닌가
십이월의 납행절은 명절되기 바이없네
아모래도 좋은때는 춘풍삼월 호시로다
춘하추동 사시절로 봄춘자가 으뜸일네
여자노름 여자행신 하전밧게 또있난가
좋다좋다 그말좋다 화전노름 하여보세
화전롱롱문 얼런지어 상하촌의 전달하니
화란춘성 만화방창 우리어이 허송하리
전후잡단 다버리고 이내말슴 들어보소
자우동유 앓았다가 낙종하고 하는말이
글잘하는 우리동유 룡문짓기 일주로다
듣고보난 우리동유 니가아니 찬송하리
수군속덕 모여앉아 하전공론 낭자하나
말잘하는 아모덕은 농산앵무 되어있고
수십여명 우리동유 초초인물 다모인다
명월같은 오동경대 동창앞에 도두놓고
청운같은 저머리에 긴낭자가 맥시로다
상하촌의 집집마다 제제동유 잡아낸다
놀기좋은 아모덕은 풍정기이 이아닌가
심심고중 들어앉아 최복단장 하울적에
월태하롱 고운얼골 분상적을 정리하고
나부잠파 귀하점은 긴낭자의 맵시로다
단장이사 하였으나 이복범절 찾아보세
군산같이 쌓인이복 색색으로 찾아보세
능나금수 저처마를 이걸내여 입고갈가
상하의복 살펴보니 최복단장 이아닌가
유리진주 좋은폐물 쟁쟁옥패 소리난다
오동장농 각개수를 평목으로 여러놓고
추운명초 겹저고리 이걸내여 입고갈가
의씨같은 전발길에 삼슨버선 맵시로다
황금지한 보석반자 무명지에 광체나고
월태하롱 저얼골에 체복단장 하고나니
돋아오는 반달이요 피여오는 꽃이로다
시여볼러 앞세우고 이러타시 떠날적에

정신일고 선는모양 참아슬퍼 못볼러라
산지조종 골윤이요 수지조종 항하수라
경기도를 이룬진대 삼각산이 제일이요
사람인지 꽃송인지 분간할수 바이없네
가소롭다 소년들은 우리노름 부러워라
가세가세 화전가세 너어어대로 가잔말가
골윤산을 가자하니 길이멀어 갈수없고
강원도로 이룬진대 금강산이 제일이요
평안도를 이룬진대 오대산이 제일이요
전라도를 이룬진대 계룡산이 제일이요
여보아라 그말말고 이스리요

[현대역]

남여동락가

우리인생 생길 때에 남녀구별 없을 손가
 전도(顛倒)받아 생긴 몸이 남자 몸이 되어 있고
 가소롭다 우리 인생 여자된 일 한이로다
 심리 출입 오리 출입 마음대로 못해보고
 유대정◆ 졸음◆◆ 놀음1한번 못해◆◆
 구주2심친 우리 동유3 부러울사 남자로다
 만고문장(萬古文章)4 이태백(李太白)은 관산(關山)에서 공◆하여
 도제천하(道濟天下) 한◆지5년 태산복두6 문방으로7
 향산거사(香山居士)8 백낙천(白樂天)9은 구로회(九老會)10를 일삼더니
 서촉(西蜀)강산(江山) 두자미11(杜子美)는 낙성일별(洛城一別)12 한 후에
 남자놀음 곳곳마다 내 이를 때 들어보라
 채석강(采石江)13에 배를 띄워 강남풍월(江南風月) 희롱(戲弄)하고
 장미화(薔薇花)를 손에 들고 수걸(수걸)운하(雲霞) 하여있고
 청산녹수(靑山綠水) 그 가운데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 있고
 청강일조(淸江日照)14 좋은 곳에서 장하강천(張夏江村)15 놀아있고
 부춘산(富春山)16에 엄자릉(嚴子陵)17은 칠리동강(七里桐江)18 찾아가서
 석범천의 육방옹(陸放翁)19은 군산추야(群山秋夜)20 글을 읽어
 오류촌(五柳村)21의 도연명22은 오두룡을 마다하고
 사십문장(四十文章)23 맹호연(孟浩然)24은 필영상의 술을 싣고
 풍채(風采) 좋은 두목지(杜牧之)25는 사추거의 벗늘대자
 일사풍월(日射風月) 좋은 경치는 불환삼공(不換三公)26 이 아닌가
 피속루에 높이 올라 오히가를 지어있고
 국화주(菊花酒)를 취하게 먹고 형풍복상 놀아볼까
 오동추야(梧桐秋夜) 달 밝은데 그 날 시를 지어있고
 취과양주(醉過楊州) 하올 때에 굴만거(橘滿車)가 되어 있고27
 육일거사(六一居士)28 구양수(歐陽修)29는 춘복춘추(春富春秋)30 같게하여
 적벽강(赤壁江)의 소동파는 걸모습 속게 하올 때에
 등왕각(滕王閣)31의 높은 차지는 왕자안(王子安)32이 놓고 있고
 황학루(黃鶴樓)33와 봉황대(鳳凰臺)34도 만고문장(萬古文章) 차지로다
 금한낙조 하였으니 그 풍채가 오죽한가
 등산임수(登山臨水)35 하올 때에 경일만귀(頃日忘歸)36 하여있고
 요소가와 명월시(明月詩)로 범범중유(泛泛中流)37 놓고 있고
 만호장안(萬戶長安)38 귀공자나 금안준마(金鞍駿馬)39 되도상에
 자고급금(自古及今)40 문장가가 오는 것이 많다만은
 넉넉히 기록 하자하니 그리하여 할 수 없네 여봐라 그말 말고 우리 놀음41 찾아보세

시호시호(時乎時乎)42 부자래(不自來)43라 다시 젊지 못하리라
 말만해도 좋다만은 무슨 놀음 차려볼꼬
 소자첩의 체격으로 기망(既望)44놀음 하여볼까
 가소롭다 우리 여자 노는 것이 정처(定處)없네
 이팔청춘(二八靑春)45 허송(虛送)하며 백발(白髮)되면 허사(虛事)로다
 부대부대46 허송말고 놀음기구 차려보세
 이태백의 뺨을 받아 채석강에서 놀아볼까
 왕우군(王右軍)47의 이름으로 수계사를 하여볼까
 육방옹(陸放翁)의 놀음으로 춘복춘추(春富春秋) 하여볼까
 여보시오 그 말 말고 우리 여자 유행으로
 귀공자의 뺨을 받아 쌍쌍명옥(雙雙明玉) 하여볼까
 청산녹수(靑山綠水) 들어가서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볼까
 여봐라 그말고 여자행신(女子行身) 될 수 있나
 이십문장(二十文章)48 자장(子長)49같이 남유강회(南遊江淮)50 하여볼까
 강호놀음 하여보며 외인점시 될 수 있나
 오호(五胡)연경(煙景)51 찾아가서 풍월(風月)하고 놀아볼까
 국화주(菊花酒)52와 연협주(蓮葉酒)53를 취하게 먹고 놀아볼까
 이말 저말 다 버리고 일년가절(一年佳節)54 찾아보세
 정월(正月)이라 십오야(十五夜)55에 망월(望月)놀음56 좋건만은
 이월(二月)이라 한식절(寒食節)57에 청명절(淸明節)58 좋지만은
 사월(四月)이라 초파일(初八日)59에 관등절(觀燈節)60이 좋지만은
 오월(五月)이라 단오절(端午節)61에 추천(鞦韆)62놀음 좋건만은
 유월이라 유두절(流頭節)63은 명절뒤틀기 없지만은
 청춘소년(靑春少年) 할일 일세 우리 여자 부당하고
 개자추(介子推)64를 생각하니 차마 슬퍼 놀 수 없고
 산중처사(山中處士) 할일 일세 우리 소객(騷客)65 할일인가
 당명황(唐明皇)66의 양귀비(楊貴妃)가 우리 먼저 놀았고
 삼복염증(三伏炎蒸)67 더울 때에 우리 어이 놀잔 말인가
 칠월(七月)이라 기망(既望)68양의 적벽(赤壁)놀음69 좋건만은
 중추팔월(仲秋八月)70 기망(既望)밤이 명절이라 좋지만은
 구월(九月)이라 초구일(初九日)의 용산놀음 좋건만은
 시월(十月)이라 시사절은 각기 신영 생각하여
 십일월(十一月)에 동지절(冬至節)은 제사하는 그때로다
 조맹덕(曹孟德)71을 생각하니 차마 슬퍼 못놀겠다 집집마다 신곡(新穀)으로 천신(薦新)72하는 날이로
 다
 망향대(望鄉臺)를 생각하니 슬픈 마음 절로 난다
 향녹기강 하올 적에 불승감창(不勝感愴)73 이 아닌가
 십이월(十二月)의 납향절(臘享節)74은 명절될 일 바이없네75

아무래도 좋은 때는 춘풍삼월(春風三月) 호시(好時)로다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로 봄춘(春)자(字)가 으뜸이네
 여자놀음 여자행신(行身) 화전(花煎)76밖에 또 있는가
 좋다좋다 그 말 좋다 화전(花煎)놀음 하여보세
 화전통문(花煎通文)77 얼른 지어 상하촌(上下村)에 전달하니
 화란춘성(花蘭春城)78 만화방창(萬化方暢)79 우리 어이 허송(虛送)하리
 전후잡담(前後雜談) 다 버리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좌우 동유 앉았다가 낙종(諾從)80하고 하는 말이
 글 잘하는 우리 동유 통문(通文)짓기 일주(一周)81로다
 듣고보니 우리 동유 니가 아니 찬송하리
 수군속덕 모여앉아 하전공론(下傳空論)82 낭자(狼藉)83하나
 말 잘하는 아무 덕은 농산앵무(壘山鸚鵡) 되어있고
 수십여명 우리 동유 초초(稍稍)84 인물 다 모인다
 명월(明月)같은 오동경대(梧桐鏡臺)85 동창(東窓)앞에 도두놓고86
 청운(靑雲)같은 저 머리에 긴 낭자87가 맵시로다
 상하촌(上下村)의 집집마다 제제(諸諸)88 동유(同類) 잡아낸다
 놀기 좋은 아무 덕은 풍정(風情)89 기이(奇異) 이 아닌가
 심심(深深)90고중 들어앉아 최복단장(最服丹粧) 하올 때에
 월태화용(月態花容)91 고운 얼굴 분상적(粉相赤)을 정리하고
 나비잠(簪)파 귀하점은 긴 낭자의 맵시로다
 단장(丹粧) 이사 하였으나 의복 범절(凡節) 찾아보세
 군산(群山)같이 쌓인 의복 색색(色色)으로 찾아보세
 능라금수(綾羅錦繡)92 저 치마를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상하의복(上下衣服) 살펴보니 최복단장(最服丹粧) 이 아닌가
 유리진주 좋은 패물(佩物) 쟁쟁(琤琤)93 옥패(玉佩)94 소리난다
 오동장롱(梧桐櫥籠) 각 개수를 평목(平木)95으로 열어놓고
 추운 명초 겹저고리 이걸 내어 입고 갈까
 외씨96같은 전발길에 삼승(三升)97 버선 맵시로다
 황금지한 보석반지(寶石斑指) 무명지(無名指)98에 광채나고
 월태화용(月態花容) 저 얼굴에 채복단장(彩服丹粧) 하고나니
 돌아오는 반달이요 피어오는 꽃이로다
 시녀 불러 앞세우고 이렇게 떠날 적에
 정신잃고 서있는 모양 차마 슬퍼 못볼러라
 산지조종(山之祖宗)99 곤륜(崑崙)100이요 수지조종(水之祖宗)101 황하수(黃河水)라
 경기도를 이르자면 삼각산(三角山)이 제일이요
 사람인지 꽃송이인지 분간할 수 전혀 없네
 가소롭다 소년들은 우리 놀음 부러워라
 가세가세 화전(花煎)가세 너 어디로 가잔 말인가

곤륜산(崑崙山)을 가자하니 길이 멀어 갈 수 없고
강원도로 이르자면 금강산(金剛山)이 제일이요
평안도를 이르자면 오대산(五臺山)이 제일이요
전라도를 이르자면 계룡산(鷄龍山)이 제일이요
여봐라 그 말 말고 있으리요

[각주]

- 1) 놀음 : 놀이.
- 2) 구주(九州) : 중국의 전역을 아홉으로 나눈 명칭으로 기주(冀州) 연주(兗州) 청주(靑州) 서주(徐州) 형주(荊州) 양주(揚州) 예주(豫州) 양주(梁州) 옹주(雍州) 등을 가리킴.
- 3) 동유(同流) : 동류로, 나이나 신분이 서로 같거나 비슷한 사람을 말하다. 동배(同輩).
- 4) 만고문장(萬古文章) : 세상에 비길 데가 없는 문장가.
- 5) 한◆지 : 한퇴지(韓退之)로 판단됨.
- 6) 태산북두(泰山北斗) : 태산북두는 오기로 보임. 태산북두(泰山北斗)는 태산과 북두칠성이라는 뜻,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뛰어난 인물을 비유하는 말 또는 학문 및 예술 분야의 권위자나 대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7) 문방으로 : 원문 밑 부분이 찢겼다가 다시 붙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장자가 잘못 붙이고 덧쓴 것으로 판단되며, 한 줄씩 당겨져 있어 뜻이 이상하게 됨. 이를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뉴대정◆졸◆◆노름한번 못해◆◆구주심친 우◆동유 부러울사 남자로다 만고문장 이태백은 관산에서 공◆하야 도제천하 한=지난 태산북두 문방으로
- 8) 향산거사(香山居士 : 백거이(白居易)의 호.
- 9) 백낙천(白樂天) :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같은 시대의 한유(韓愈)와 더불어 ‘이두한백(李杜韓白)’으로 불리움.
- 10) 구로회(九老會) : 백거이(白居易)와 종유(從遊)한 아홉 노인(老人)들의 모임.
- 11) 두자미(杜子美) : 당(唐)나라의 문인인 두보(杜甫). 자미(子美)는 자(字). 성당시대(盛唐時代)에 시성(詩聖)이라 불렸으며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컬음.
- 12) 낙성일별(洛城一別) : 두보의 시. <恨別> 洛城一別四千里 胡騎長驅五六年 草木變衰行劔外 兵戈阻絕老江邊 思家步月清宵立 憶弟看雲白日眠 聞道河陽近乘勝 司徒急爲破幽燕. 낙성은 일별하니 사천리요, 호기가 길이 달린지 오륙년이로다. 초목은 변쇠하고 검각 밖을 거닐며, 전쟁은 왕래를 끊어 강변에서 늙도다. 집을 생각하고 달 아래 거닐며 맑은 밤에 우뚝 서니, 아우를 그려 구름을 보고 대낮에 졸도다. 듣건대 요사이 하양에서 싸움에 이겼다 하니, 사도여 급히 유연을 파하십시오.
- 13) 채석강(采石江) : 당나라 시인인 이백(李白)이 술에 취해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고 전해지는 강.
- 14) 청강일조(淸江日照) : 햇별이 내리쬐는 맑은 강.
- 15) 장하강촌(張夏江村) : 긴 여름날의 강마을.
- 16) 부춘산(富春山) : 중국 절강성(浙江省) 동노현(桐廬縣)에 있는 산. 후한(後漢) 때 은사(隱士)인 엄자릉(嚴子陵)이 살던 곳으로 유명함.
- 17) 엄자릉(嚴子陵) : 중국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의 은사(隱士)로, 이름은 엄광(嚴光)이며 자릉(子陵)은 그의 자임. 젊어서 후한(後漢)을 세운 광무제와 더불어 동문수학하였고, 광무제가 즉위한 다음에 은거하였다가 광무제의 초빙을 받아 조정에 나갔으나 곧 다시 돌아와 부춘산(富春山) 동강(桐江) 칠리탄(七里灘)에서 낚시를 즐기면서 살았음.
- 18) 칠리동강(桐江七里) : 엄자릉이 말년에 낚시를 즐기며 살았던 곳.
- 19) 육방옹(陸放翁) : 송(宋)나라 육유(陸游). 자(字)는 무관(務觀). 호(號)는 방옹(放翁). 재기초월(才氣超越)하고 시(詩)에 능함.

- 20) 군산추야(群山秋夜) : 가을 밤 군산에서.
- 21) 오류촌(五柳村) : 도연명이 살던 마을 이름. 그의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함.
- 22) 도연명(陶淵明) : 자(字)는 연명(淵明) 이름 잠(潛). 문 앞에 버드나무 5 루를 심어 놓고 스스로 오류(五柳) 선생이라 칭하기도 하였음. 대표작으로 <귀거래사(歸去來辭)>가 있음.
- 23) 사십문장(四十文章) : 맹호연이 오랫동안 녹문산(鹿門山)에 은거하여 있다가 나이 사십 세가 넘은 후에 처음으로 경사(京師)에 와서 대학관(大學館)에서 시(詩)를 지으니 만좌(滿座)가 탄복하였다고 함.
- 24) 맹호연(孟浩然) : 성당(盛唐)의 시인(詩人) 왕유(王維)와 함께 자연파 시인으로 불리며 녹문산(鹿文山)에 은거(隱居)하고 벼슬하지 않음.
- 25) 풍채(風采) : '두목지'는 당나라 때의 시인. 풍채가 매우 당당하고 아름다워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였다고 함.
- 26) 불환삼공(不換三公) : 삼공의 지위와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 삼공(三公)은 영의정·우의정·좌의정.
- 27) 취과양주굴만거(醉過楊州橋滿車) : 두목지(杜牧之)는 풍채가 매우 잘 생긴 인물인데, 그가 술에 취하여 양주(楊州) 시내를 지나가니 기생(妓生)들이 그 풍채에 반하여 굴을 던져 수레에 가득 찼다는 고사(故事).
- 28) 육일거사(六一居士) : 구양수의 호.
- 29) 구양수(歐陽修) : 중국 송나라 때의 문장(文章)과 해서(楷書)의 대가(大家). 호(號)는 취옹(醉翁).
- 30) 춘복춘추(春富春秋) : 장래가 긴 젊은 나이. 춘추는 나이의 문어적 표현.
- 31) 등왕각(滕王閣) : 당 태종의 아우 등왕(滕王)이 강서성(江西城) 남창(南昌)의 서남방(西南方)에 세운 누각.
- 32) 왕자안(王子安) : 왕발(王勃). 중국 당(唐)나라 초기의 시인. 자(字)는 자안(子安). 등왕각에 가서 지었다는 <등왕각서(滕王閣序)>가 유명함.
- 33) 황학루(黃鶴樓) : 중국 호북성(湖北省) 무창(武昌) 서남에 있는 누명인데 촉(蜀)의 비위(費禕)가 등선하여 황학을 타고 다니다 이곳에 내려 쉬었기 때문에 이름 지었다고 함.
- 34) 봉황대(鳳凰臺) :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유명한 누대.
- 35) 등산임수(登山臨水) : 산을 오르고 물가에서 즐겁게 놀음.
- 36) 경일망귀(頃日忘歸) : 하루가 다 가도록 돌아갈 줄 모름.
- 37) 범범중유(泛泛中流) : 동실동실 물 위를 떠내려감.
- 38) 만호장안(萬戶長安) : 집이 아주 많은 서울.
- 39) 금안준마(金鞍駿馬) : 금빛 안장과 천리마.
- 40) 자고급금(自古及今) : 예로부터 지금까지.
- 41) 놀음 : 놀이.
- 42) 시호시호(時乎時乎) : 좋은 때를 만나 기뻐하여 감탄할 때에 하는 말.
- 43) 부자래(不自來) : 스스로 오지 못함.
- 44) 기망(既望) : 음력으로 매달 열엿셋날.
- 45) 이팔청춘(二八靑春) :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또는 혈기 왕성한 젊은 시절.
- 46) 부대부대 : 부디부디.

- 47) 왕우군(王右軍) : 왕희지(王羲之). 중국 진(晉)나라의 명필로, 자(字)는 일소(逸少)이며. 벼슬이 우군장군(右軍將軍)에 이르러 왕우군(王右軍)으로도 불리움.
- 48) 이십문장(二十文章) : 사마천은 스무살 때 부터 천하를 주유(周遊)하였음.
- 49) 자장(子長) : 사마천(司馬遷), 사마자장(司馬子長). 서한(西漢) 때의 사가(史家). 자는 자장(子長). 무제(武帝) 때 태사령(太史令)이 됨. 사기(史記) 백삼십권(百三十卷)을 지었음.
- 50) 남유강회(南遊江淮) : 사마자장(司馬子長)이 스무살에 남쪽 강회(江淮)에 노닌 일.
- 51) 연경(煙景) : 구름이나 연기 따위가 한가로이 어리어 있는 아름다운 경치.
- 52) 국화주(菊花酒) : 국화를 재료로 하고 생지황 등 여러 가지 약초를 넣어 빻은 치풍제(治風濟)의 술. 또는 국화꽃과 잎을 찹쌀과 섞어 빻었다가 9월 9일에 액을 쫓기 위하여 마시는 술.
- 53) 연협주(蓮葉酒) : 찹쌀 지에(고두밥)와 누룩을 버무려 연잎과 썬겨로 놓아 빻는 술.
- 54) 일년가절(一年佳節) : 1년 중 좋은 시절이나 계절.
- 55) 십오야(十五夜) : 보름 밤.
- 56) 망월(望月) : 달맞이 놀이.
- 57) 한식절(寒食節) : 동지(冬至)에서 105일째 되는 날. 음력으로는 대개 2월이 되고 간혹 3월에 드는 수도 있음.
- 58) 청명절(淸明節) : 24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의 사이로, 양력 4월 5일·6일쯤. 날이 풀려 화창해지기 시작함.
- 59) 초파일(初八日) : 석가가 탄생한 날로 음력 4월 8일.
- 60) 관등절(觀燈節) : 등(燈)을 내어 달고 불을 켜는 명절이라는 뜻으로, 석가가 탄생한 사월 초파일을 일컫는 말.
- 61) 단오절(端午節) : 음력 5월 5일, 수릿날이라고도 함.
- 62) 추천(鞦韆) : 그네.
- 63) 유두절(流頭節) : 명절의 하나. 음력 6월 보름날. 신라 풍속에 이날 나쁜 일을 털어버리기 위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씻었다 함.
- 64) 개자추(介子推) : 중국 춘추시대의 은사(隱士). 진나라 문공이 망명생활을 할 때 그를 모셨는데 후에 문공이 왕위에 올랐으나 개자추를 등용하지 않자 실망하여 산에 들어가 살았는데 문공이 훗날 잘못을 뉘우치고 불려도 응답하지 않았음. 문공이 그를 보기 위해 산에 불을 질러도 나오지 않고 타 죽었음. 그가 불에 타 죽은 것을 기리기 위한 날이 한식(寒食)으로 이때는 찬밥을 먹음.
- 65) 소객(騷客) : 시인과 문사(文士)를 통틀어 이르는 말.
- 66) 당명황(唐明皇) : 중국 당나라 현종 황제를 가리킴.
- 67) 삼복염증(三伏炎蒸) : 삼복 찌는 듯한 더위. 찌는 듯한 한여름.
- 68) 칠월기망(七月既望) : 기망은 보름이 지난 다음날을 말함. 이 때 달이 보름달보다 더 밝다고 함.
- 69) 적벽(赤壁) : 소동파가 적벽강에서 뱃놀이 한 것을 가리킴.
- 70) 중추팔월(仲秋八月) : 추석, 음력 8월 15일.
- 71) 조맹덕(曹孟德) : 조조(曹操).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시조.
- 72) 천신(薦新) : 계절마다 새로 난 과실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림.
- 73) 불승감창(不勝感愴) : 가슴 아픔을 이길 수 없음.
- 74) 납향절(臘享節) : 납일(臘日)에 한 해 동안 지은 농사 형편과 그 밖의 일들을 여러 신에게 고하는 제

사. 납제(臘祭). 납향제.

75) 바이 없네 : 전혀 없네.

76) 화전(花煎) :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나 개나리, 국화 따위의 꽃잎이나 대추를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

77) 화전통문(花煎通文) : 화전놀이와 관련된 정보를 여러 사람의 성명을 적어 차례로 돌려보는, 통지하는 문서.

78) 화란춘성(花蘭春城) : 꽃은 봄 성에 난만히 피어남.

79) 만화방창(萬化方暢) : 봄이 되어 만물이 한창 자라남을 이르는 말.

80) 낙종(諾從) :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진심으로 따라 좇음.

81) 일주(一周) : 일정한 경로를 한 바퀴 도는 것.

82) 하전공론(下傳空論) : 전해지는 이야기에 대한 실속 없는 빈 논의.

83) 낭자(狼藉) :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움.

84) 초초(稍稍) : 점점(漸漸).

85) 오동경대(梧桐鏡臺) : 오동나무로 만든 경대(鏡臺).

86) 도두놓고 : 위로 높게 놓고.

87) 낭자 : 여자의 예장(禮裝)에 쓰는 땀머리의 일종. 쪽 찢 머리 위에 덧대어 얹고 긴 비녀를 꽂음.

88) 제제(諸諸) : 모두 모두.

89) 풍정(風情) :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風致).

90) 심심(深深) : 깊고 깊음.

91) 월태화용(月態花容) : 달 같은 태도와 꽃 같은 얼굴.

92) 능라금수(綾羅錦繡) : 명주실로 짠 피륙의 총칭.

93) 쟁쟁(琤琤) : 옥이 맞부딪쳐 맑게 울리는 소리.

94) 옥패(玉佩) : 옥으로 만든 패물.

95) 평목(平木) : 평미래.

96) 외씨 : 오이씨.

97) 삼승(三升) : 240올의 날실로 짠 품질이 낮은 굵은 삼베.

98) 무명지(無名指) : 약손가락.

99) 산지조종(山之祖宗) : 산의 근본.

100) 곤륜(崑崙) : 중국의 전설에서 멀리 서쪽에 있어 황하의 발원점으로 믿어지는 성산(聖山). 서왕모(西王母)가 살고 있다는 산.

101) 수지조종(水之祖宗) : 물의 근본.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